

경기북부 약학대학 신설 건의안

(김정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8
------------------	-------

제출년월일 : 2009. 11. 5

제 출 자 : 박형덕,임상오,홍석우
홍운섭,이균형,김정자
의원(6)

□ 제안이유

- 최근 교육 과학 기술부에서는 2011년부터 약학대학정원을 증원하여 지역별 약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우리시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주한미군의 주둔과 이전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신약개발에도 유리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도에 배정한 100명의 약학대학 정원중 일부를 배정해주시기를 촉구하는 **경기북부 약학대학 신설**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2011년부터 약학대학 정원을 증원하여 지역별 약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인구는 줄어 들고, 산업은 박약하며, 교통등의 인프라는 물론 의약학대학은 전혀 없는 실정인 반면 서울과 근거리에 있으며,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DMZ의 우수한 생태 자원을 이용한 신약개발에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에 약학대학 신설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함.

☐ 건의문 : 별 첨

경기북부 약학대학 신설 건의서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평소 교육·과학·기술을 통해 과학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신 장관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별 약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약학대학정원을 증원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우리 동두천시는 귀부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경기북부에 약학대학이 신설되어 우리 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두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규제로 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특히 전체 시면적의 42%가 주한미군의 공여지로 제공되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광역전철의 개통으로 서서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택지개발, 지방산업단지조성등 나름대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시발전의 호기가될 경기북부 최대의 1,500여 병상을 갖춘 제생병원을 신축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95년부터 대진대학교에서 의과대학신설을 희망하여 왔으나 국가의 의료정책의 결과 아직도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대학병원의 조기개설을 희망하며 향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약사전문인력의 지역별 양성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가장 잘 가늠 합니다. 특히 약학대학은 교육·의료 여건의 향상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곳은 서울과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각종규제와 제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정한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신약개발에도 매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약학대학은 전무하며 변변한 대학병원 하나없는 이곳 경기북부에 이번에 경기도에 배정한 100명의 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배정해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북부지역에 약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 과학 기술분야에 소외된 북부지역주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과 북부지역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웅대한 꿈을 가질수 있는 것이며, 「접경지역지원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됩니다.

약학대학 설치를 통해 지금까지 소외 속에서 살아 온 이곳 북부접경지역 200만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 올리며 장관님과 교육과학기술부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